

## 오디오 물리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AVANTI

STEREO SPEAKERS  
AUDIO PHYSIC  
AVANTI 4  
₩ 16,000,000

**장점**  
베르고 정확한  
저역, 뚜렷하고  
침묵한 모카싱,  
대형 스피커,  
양재감.

**단점**  
나무 캐비닛  
디자인이 사운드를  
못 따라올 정도.

**총평**  
치밀하고 정확한  
사운드로 완성된  
Avanti의 4세대  
변천.  
AudioPhysic의  
이번 초기 물리학  
강의도 A+이다.

AudioPhysic의 대표작을 꼽으라면 대개 Virgo와 Brilon을 떠올리지 않겠지만 주력 엔진은 Avanti이다. 1999년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단 2차례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을 뿐이다. 그만큼 이 스피커의 완성도가 높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한 풍류를 할 만큼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이 스피커의 정확한 이름은 그냥 Avanti이다. 다만,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이전 제품과 구분하기 위해 Avanti 2, Avanti 3 같은 표현을 쓰지만 정확한 Avanti이며 숫자는 없다. 이번 테스트의 Avanti는 3번째 업그레이드를 거친 4세대 Avanti로 전작과는 그 차이가 크지 않지만 눈보다는 귀로 느끼는 변화가 훨씬 크다.

## 변하지 않는 전통과 견고한 만물세

전면을 7도 기울인 디자인은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간의 정확한 발음원 위치를 위한 기술로 이 회사의 오랜 전통이다. 인클로저는 폭이 좁고 뒷길이가 깊며 스피커의 모서리들은 둥글게 라운드 처리되었다. 인클로저 모양 자체도 폴방울 형태로 완성되어 스피커 내부의 울림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했다.

드라이버는 외형상으로는 전작과 동일한 vis의 링형 라디에이터 방식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드레인지에는 Sese의 5인치 알루미늄 메탈 콘 드라이버를 2개 사용하였다. 우퍼는 6.5인치로 Peerless의 잿을 스피커 좌우에 각각 2개씩 스피커당 총 4개의 우퍼가 사용되고 있다. 재미나는 것은 미드레인지의 경우 2개의 알루미늄 콘이 같은 중역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대역이 나뉘어 200-500Hz와 500-2.2kHz의 대역을 담당하는 점이다. 대개 주파수대역 영역이 넓어질수록 드라이버의 면적이 커야 한다. 따라서, AudioPhysic은 크지 않은 드라이버를 정확히 제어하되 대역을 나눠 주파수 별로 각기 다른 성능의 마그넷으로 드라이버를 다르게 설계하여 중역의 평탄한 재생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한편 베이스에 사용된 우퍼들은 이런 구조의 스피커로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200Hz의 낮은 중역까지 재생하며 스피커당 4개 우퍼 구동도 매우 특별하다. 측면에 우퍼를 장착하는 스피커들은 대개 한쪽 면만 사용하는데 Avanti는 양측면 모두에 드라이버를 장착한다. 이를 통해 재생 시 스피커 캐비닛의 진동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지역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캐비닛은 모두 덴마크의 전용 공장서 특별 제조되며, 스피커 터미널 또한 WBT의 클래식급 단자와 접퍼를 사용하고 있다.

## 치밀하고 빠른 하이엔드 색채

사실, 오래전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AudioPhysic의 다른 스피커를 들었을 때 지나친 저역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었다. 선입견을 갖고 Avanti를 들었는데 결과는 보기 좋게 뒷수를 쳤다. 흔히 우퍼가 낮은 위치에 장착된 제품들의 저역은 매우 크고 양이 많은 경우가 보편적이지만 Avanti는 그와 달리 매우 질제되고 제대로 컨트롤된 저음을 들려준다. 대편성 교향곡이나 오저역 팀파니가 설쳐도 혼탁하거나 심한 부밍 같은 지역의 과잉이 전혀 없이 탄력 넘치고 빠르게 리듬을 잃어낸다. 빠르게 질제된 저역 이미지는 마치 알루미늄으로 재시를 디자인한 최신 스피커들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두들겨지거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을 것 같았던 중역도 예상과 달리 빠르고 타이탄느낌으로 매우 또렷하고 굳터더기 없는 깔끔한 보컬을 들려준다. 한마디로 다이내믹스가 매우 좋으며 다채로운 소리 변화를 놓침 없이 보여주는 뛰어난 계조 표현을 들려준다. 스테일은 대형기답게 대단히 크고 넓게 좌우로 펼쳐지며 악기들의 정확한 무대 위의 배치는 높은 정밀도를 자랑한다. 즉, 스피커는 사라지고 눈앞에는 무대와 연주자 그리고 가수만이 남는 환호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Avanti는 수천만 원이 넘는 이 회사의 상위 제품 몇 가지를 제외하고 오디오파일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AudioPhysic의 가장 실질적인 플래그십이다. 20년이라는 긴 세월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는 여전히 이 스피커가 젊고 활력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실제로 사운드 또한 최신 기술의 최신 소개 제품들과 비교해도 전혀 구시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금속 소재 스피커들보다 더 신세대적이고 더 정밀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능력이 있다. 가장 현대적인 오디오의 물리적 특징을 즐기고 싶다면 이 독인재 하이엔드 스피커 시스템의 넘치는 열정을 느껴보길 바란다. 마치 에스틴 미런의 클래식 모델 재시로 최첨단 스포츠카를 만든다면 Avanti와 같을 것이다.

Avanti 4의 외형 변화는 크지 않지만 사운드의 변화는 업그레이드를 증명한다.



CONTACT  
NO. Tel  
수입점  
(주)다움  
02-596-4030

설치용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 등의 나름대로 세심한 배려도 필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렇다면 과연 소리는 어떻게?

솔티가 지휘한 주페의 '경기병 서곡' 부터 걸어보았다. 섬세하고 긴장감 넘치는 현의 울림과 호방한 금관의 울림이 리얼하게 전달되어, 필자의 만성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쾌감이 전달되었다. 이러한 긴장감과 섬세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아마도 참신하고 독창적인 설계의 결과일 것으로 보여진다. 겉모습은 적당한 사이즈의 톨보이형이지만 사운드는 마치 대형 스피커처럼 호방하다.

다음은 스페틀라나가 부르는 '러시아의 노래'. 정말 시린 가슴을 부여안고 노래하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러시아 들녘에 지는 황혼을 바라보는 듯하다. 그녀의 하이 톤이 가감없이 잘 전달될 뿐만 아니라, 발랄라이카와의 멋진 조합으로 환상의 음악이 연출된다. 행복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음악을 좋은 오디오 시스템으로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행복인 것이다.

이번에는 존 콜트레인과 조니 하트만의 '마이 윈 앤드 온리 러브' 를 걸어본다. 저음도 상당히 풍부한 편이고, 긴장감과 섬세함



도 충분히 전달된다. 존 콜트레인의 테너 색소폰과 백만불짜리 하트만의 목소리의 앙상블은 가히 환상적인 느낌이 들 정도이다. 본기는 세련된 디자인도 눈

길을 끌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운드의 음악적 완성도도 높은 제품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정현성)

●구성:4웨이 5스피커·2 페시브 라디에이터 ●인클로저:페시브 라디에이터형 ●사용유닛:우퍼 18cm 콘형×2, 미드베이스 15cm 콘형, 미드하이 15cm 콘형, 트위터 2.5cm 링 라디에이터형, 페시브 라디에이터 18cm 콘형×2 ●크로스오버 주파수:200Hz, 500Hz, 2.2kHz ●주파수 특성:28Hz~40kHz(-3dB) ●입력전력:40 ●감도:89dB/W/m ●크기:W24×H111×D42cm ●무게:42kg ●수입원:대웅(02-587-7300)